



산업동향 www.kcca.or.kr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 활용 쇠퇴
-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경영위기'
- 원자재가격 등 비용상승분 미반영
- 원자재발 무역수지 불안 지속
- 인수위, 법인세 인하 추진
- 중소기업 '신입사원 만족도 평균 52.2점'

공공구매론 중소활용 확대

작년에 시범운영한 '공공구매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용이 급증했고 참여기관도 대폭 늘었다.

중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공구매론은 882건, 1천748억원이 신청돼 실제 대출은 443건에 666억원이 이뤄졌다.

2006년 13억원 신청에 6억원을 대출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공공구매론 운용 초기인 2006년 7월 참여기관은 6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한전, 철도공사, 주택공사 등 총 115개 기관에 이른다. 정부 및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 총 참여기관은 156개 기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론'을 새롭게 보완하고 확대 운영하는 등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0억원을 투입해 자금지원 업무 중 수기로 진행하던 것을 전과정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해 실시간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론 지원대상을 물품계약에만 한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공사 및 용역계약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확보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바젤 II 시행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신용보험과 공공구매론 연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우리은행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신용보험이란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을 통해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보험사의 신용등급을 적용받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은행은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이 민간 금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연결해 주고 있다. 중기청 공공구매지원단 관계자는 "공공구매론 지원업무 전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네트워크 시스템.

[2008년02월20일 중소기업뉴스]

공공기관 납품 중소 '경쟁위기'

영광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는 종업원 20명 규모의 A사는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시멘트, 모래 등 원자재가격은 20%나 인상됐지만, 관급단가는 반영되지 않아 적자금액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3월부터는 시멘트 가격이 10% 추가인상될 예정. 결국 A사의 대표는 건설경기 호전전망도 없어 사업을 접거나 서비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A사처럼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많은 곳이 원자재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이 안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강영태)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179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채산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0.0%가 '현재 경영상태가 위기'라고 답했다. 특히 3.9%는 '부도 직면'으로 답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상태 위기' 사유로는 '원자재가 인상분의 납품단가 미반영'이 44.2%로 가장 많아 납품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외면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어 '동종 업체간 과당출혈 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31.0%)',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납품물량 감소(21.5%)' 등의 순이었다.

채산성악화로 인한 경영곤란으로 73.5%가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 결제 지연'을, 29%는 '대출금 상환 연체' 등을 경험했고 71.6%는 '매출액 감소', 25.2%는 '종업원 인원 축소' 등을 들었다.

기업들은 또 주요 원자재가격은 지난해 1월에 비해 평균 24.3% 인상됐지만 관급 납품단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는 납품가격을 평균 25.2%인상해야 채산성이 보장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원자재가격이 급상승해 부도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원자재가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02월20일 중소기업뉴스]

원자재가격 등 비용상승분 미반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와 관련된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이 다른 부문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6일부터 12월4일까지 전자·자동차·건설 등 3개 업종의 21개 업체와 거래하는 1천236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평가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하도급대금 결정, 납품 및 대금지급, 비(非)대금, 상생협력(윤리경영) 등 5개 부문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느끼는 거래공정성을 점수로 매겨 평가했다.

조사 결과 5개 부문 중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 점수는 71.5점으로 5개 부문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상승과 임금인상, 환율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비용상승분을 인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품·향음·이익제공 강요나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비(非)대금 부문은 공정성 점수가 83.7점으로 5개 부문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체결 부문과 납품 및 대금지급 부문이 각각 79.1점으로 뒤를 이었고 상생협력은 77.9점이었다.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에서는 '대기업 임금상승에 따른 단가인하 적정성' 항목의 점수가 특히 낮았다.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도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납품 및 대금지급 부문의 경우 대기업이 납기를 부

당하게 정한 뒤 납품지연을 이유로 제품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대금 부문의 경우 영업비밀 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여부 및 정도에 대한 공정성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기업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업체들 중에서 47.4%가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기업은 하도급 벌점 감점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기업들 스스로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평가결과를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한 감시 등 향후 범집행 및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지원 하는 금융지원 네트워크 시스템.

[2008년02월20일 중소기업뉴스]

원자재 무역수지 불안 지속

2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가져온 원유 등 원자재발 수입액 급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연초부터 경제운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수출입 관련 경기동향 점검회의에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대외무역환경 전망’ 자료를 통해 “국제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과 투기수요 등으로 높은 원자재 가격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석유시장 상황과 유가전망에 대해 분석한 한국석유공사도 “향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실질 생산 증대에 따른 재고 증가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원유가 비수기에 진입하는 2·4분기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배럴당 90달러(두바이 유 기준)를 넘나드는 초고유가 탓에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월 단위로는 4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8억6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1월에는 적자규모가 무려 33억8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2월에도 뚜렷한 개선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아직 2월 무역수지 동향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2월에도 유가는 물론, 금속광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무역수지의 대폭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측에서도 수출의 최대 당면 애로로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8년02월20일 중소기업뉴스]

인수위, 법인세 인하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법인세 등의 감세 효과가 5년간 8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의 인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3개 감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모두 8조6천20억원이 줄어든다.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인하여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3%를 2009년에 12%, 2011년에 11%, 2013년에 10% 등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08년02월20일 중소기업뉴스]

중소 '신입사원 만족도 평균 52.2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신입사원의 장점으로 업무적응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는 애

사심 결여와 개인주의적인 대인관계를 꼽았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직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248개사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는 52.2점으로 집계됐다.

점수대별로 살펴보면 '40점~60점 미만'이 46.8%로 가장 많았다. '60점~80점 미만'은 29.8%, '20점~40점 미만' 14.5%, '0점~20점 미만' 5.7%, '80점~100점' 3.2% 이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신입사원의 장점(복수응답)으로는 41.9%가 '외국어나 PC활용 능력 향상에 따른 업무적응속도'를 1위로 꼽았다. '배우려는 적극성'은 25.8%, '창의적인 아이디어' 15.3%,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전문성' 14.5%, '토론학습으로 인한 뛰어난 문제해결능력' 6.5% 등이 있었다.

신입사원들의 단점(복수응답)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애사심 결여'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대인관계'가 각각 52.4%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에 대한 책임감 결여'는 42.7%, '조직적응력(팀워크·출퇴근시간 준수 등) 부족' 34.7%, '전공관련 전문지식 부족' 12.9% 등 이었다.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힘든 점은 '채용 후 신입사원 이탈'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적재적소의 인재선별'은 33.6%, '지원자 과다 및 허수지원에 따른 업무량 증가' 13.9%, '채용 청탁' 2.5% 순 이었다.

[2008년02월20일 중소기업뉴스]